

질병!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

스물다섯 번째 빛

Bediuzzaman Said Nursi 지음

Sözler®

질병!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

지은이 Bediuzzaman Said Nursi

번역자 신양섭

원서명 Hastalar Risalesi

편집 İmak Ofset, İstanbul

편집장 Muhammed OZKAYA, Ahmet AYDOGAN

이메일 readnurkorea@gmail.com

ISBN: 978-975-432-560-7



Sözler® Neşriyat Tic. ve San. A.Ş.

S. Demirel Bulvarı Aykosan San. Sit.

4'lü A Blok Kat:3 No: 244

İkitelli / İstanbul / TÜRKİYE

Tel : +90 212 671 25 47 - 48 pbx

Faks: +90 212 671 25 49

Ankara Cad. F. Kerim Gökay İşhanı No: 11/10

Cağaloğlu / İstanbul / TÜRKİYE

Tel : +90 212 527 10 10 - 511 79 80

Faks: +90 212 520 82 31

Online Kitap Siparişi: sozler@sozler.com.tr

www.sozler.com.tr ● www.sozlernesriyat.com

Baskı Tarihi: 2020

Baskı Yeri : İmak Ofset Basım Yayın
Yeni Bosna / İSTANBUL
+90 212 656 49 97 pbx

© Copyright Her Hakkı Mahfuzdur.

역자 : 신양섭

역자 신양섭은

* 1982 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 졸업.

* 1985-1987 년 요르단 정부 장학생으로 이슬람대학에서
아랍어 연수.

* 1987-1995 년 터키 정부 장학생으로 국립 이스탄불대학교
페르시아어문학과 석·박사

*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에 재직하며
이란어과에서 강의 중.

* 주요 저서 : 『바보 현자의 웃음 철학』 (2005),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2012) 외 다수

* 주요 논문 : 「페르시아 문학의 수사법
연구」 (2001), 「페르시아 문학 속의 예수 관련 표현
연구」 (2012) 외 다수가 있다.

Bediüzzaman Said Nursi (b. 1876-d. 1960) 는 그의 추종자들과 반대자들에게 20 세기 무슬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Bediüzzaman 은 어린 나이부터 탁월한 지능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고, 14 세의 나이에 Madrasa (종교 학교) 교육의 정상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는 다른 종교 학자들과 논쟁할때에 놀랄만한 기억력과 정복당한 적이없는 기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그의 정확한 기억력과 훌륭한 분석 능력의 확인으로 "Bediüzzaman" 또는 "비할데 없는 시간" 또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의 전기 작가들에 따르면, 다른 학생들이 9 년만에 성취 할 수 있는 것들을 Nursi 는 3 개월 만에 성취했습니다.

Bediüzzaman Said Nursi 의 작품 (The Risale-i Nur Collection)은 130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탁월하게 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루는 것에 적합하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은 현대인의 사고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읽는 이가 믿고 있던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물론적 철학에 깊숙이 스며 들어있는 사고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이 철학이 이야기하는 모든 질문, 의심 및 혼란에 구체적 그리고 개별적으로 답변합니다. 또한, 현대인의 마음을 나타내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답합니다. 그의 Risale-i Nur 는 터키에서 종교인들이 세속적인 국가에 의한 억압에 노출 된 기간 동안 회교도 신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그 지역의 이슬람교 부활에 한 몫을했습니다.

Bediüzzaman Said Nursi 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알게 됨에 따라 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Risale-i Nur 서적은 미국,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필리핀, 튀니지, 러시아, 호주 등의 50 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Bediüzzaman Said Nursi 의 탁월한 작품은 오랜 세월을 걸쳐 과학, 철학, 종교 등 모든 학문 분야의 전문 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Risale-i Nur 움직임은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1960 년 3 월 23 일, Bediüzzaman Said Nursi 가 사망했을 당시에 법원에서 평가한 그의 개인 재산 전체는 평소 그가 말하던대로 바구니 한통뿐이었습니다. 그는 줄곧 “나의 전 재산은 바구니 한 통뿐이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질병!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

스물 다섯 번째 빛

이 글은 25 가지의 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들에게 약을 발라주고 위로와 정신적 처방을 내리기 위해 그리고 환자를 위문해 쾌유를 기원할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경고와 사과

이 정신적 처방은 그동안 제가 쓴 글들과 달리 서둘러 집필했을 뿐 아니라¹ 평소와 달리 재고와 수정을 가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오직 한 번만 읽어보고 급하게 편집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초고의 어수선했던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기억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저는 또 다시 검토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은, 특히 환자들은 불쾌한 구절들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어 및 표현들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¹ 이 글은 4 시간 반만에 집필되었습니다.

﴿الَّذِينَ إِذَا أَصَابَتْهُمْ مُصِيبَةٌ قَالُوا إِنَّا لِلَّهِ وَإِنَّا إِلَيْهِ رَاجِعُونَ﴾

재앙이 있을 때, '오, 주여!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께로 돌아가나이다'라고 기도하는 자 있나니.²

﴿وَالَّذِي هُوَ يُطْعِمُنِي وَيَسْقِينِ﴾ * ﴿وَإِذَا مَرِضْتُ فَهُوَ يَشْفِينِ﴾

주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실 음료를 주시며,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 주시니라.³

² (꾸란 2 장 156 절)

³ (꾸란 26 장 79-80 절)

본 글에서는 인간의 열 명 중 하나를 구성하는 이재민과 환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이로운 약이 될 수 있는 25 가지 처방을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

오 불우한 환자여! 걱정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당신의 병은 당신에게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마치 자본과 같아서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맺지 못하고 소멸될 수 있으며 또한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과 내세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빠르게 지나가버립니다. 병은 당신의 그 자본을 큰 이익으로 열매맺게 합니다. 또한 병은 생명이 빠르게 소모될 여지를 주지 않고 붙들어 연장시켜주며 열매를 맺고 나서야 비로소 소멸되는 법입니다. 생명이 병을 통해 오래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 다음과 같은 속담이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간은 길지만, 행복의 시간은 극히 짧다."



두 번째 치료

오 참을성 없는 환자여! 인내하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이 병은 당신의 삶의 매 분들을 경배의 매 시간들로 바꾸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배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긍정적인 경배로서 예배와 기도처럼 잘 알려진 경배이며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경배로서 질병이나 재난을 통해 화를 입은 자가 무기력과 허약함을 느끼며 자비로운 창조주께 피신처를 구하고 애원하는 경배입니다. 이 경우 창조주께서는 순수하고 거짓 없는 정신적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질병을 겪은 하나의 생명은,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는 한, 신자에게 경배로 간주된다는 정통한 하디스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내하고 감사하는 환자의 1 분간의 병은 1 시간의 경배로 간주되며, 완벽한 정신적 수행자의 1 분은 하루의 경배로 간주된다는 것이 정통한 하디스 및 믿을만한 증언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1 분간의 생명을 1,000 분으로 간주될 만큼 당신에게 긴 생명을 얻게 해주는 병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치료

오 조급한 환자여! 인간이 향락과 쾌락을 얻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계속해서 온 사람은 가고 젊은이들은 늙고 죽음과 이별이 끊임 없이 반복된다는 사실로도 증명됩니다. 또한 인간은 생물체 중 가장 완벽하고 높은 지위에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가장 풍부한, 생물체들의 왕으로 간주되지만, 동시에 과거의 즐거움과 미래의 재난을 고려함으로써 다른 동물들에 비해 훨씬 더 슬프고 더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단지 멋지게 살기 위해 그리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하나의 자본을 소유한 인간은 현세에서 교역을 통해 영원하고 지속적인 생활의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 주어진 자본은 또한 생명입니다. 만일 질병이 없다면 건강과 행복도 모르게 되며 현세를 좋게만 보고 내세를 잊게 될 것입니다. 무덤이나 죽음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자본을 헛되이 허공에 날려버릴 것입니다. 질병이 갑자기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당신의 몸과 시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불사신이 아니며 자유롭지 않아. 너에게는 하나의 의무가 있어. 자만심을 버리고 너를 창조하신 분을 생각해라. 무덤에 들게 될 것을 깨닫고 준비해라."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바로 질병은 결코 속이지 않는 충고자이자 경고를 내리는 스승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고통이 심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내를 기원해야 합니다.

네 번째 치료

오 불평하는 환자여! 당신의 권리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이자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과 기관과 기능은 당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게에서 사온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다른 분의 것입니다. 그것들을 소유한 주인은 마음대로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26 번째 말씀에서 예를 든 것처럼 무척 부유하고 무척 재주가 많은 어떤 예술가가 자신의 멋진 예술과 값비싼 재산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불쌍한 사람에게 불과 1 시간 동안 급료를 주고 모델 일을 맡긴 후 그 가난한 사람에게 보석으로 장식하고 가장 숨씨있게 짠 옷을 입힙니다. 그에게 여러가지 일을 시키며 자세를 바꾸게 합니다. 자신의 뛰어난 예술을 보여주기 위해 늘리고 줄이고 자르고 하며 옷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급료로 고용된 그 불쌍한 사람에게 "당신은 나를 귀찮게 하는군요. 허리를 굽혔다 일어서게 하며 나에게 고통을 주는군요. 나를 아름답게 했던 이 옷을 자르고 줄여서 내 아름다움을 망쳐버리는군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을까요? 무자비하고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 환자여, 당신에 대한 영광스러운 예술가이신 하나님도 바로 여기서 든 예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분은 눈과 코, 이성과 마음처럼 찬란한 감각들로 장식되어 입혀진 신체라는 옷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이(**Al-Asma-ul-Husna**) 새겨진 자수들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가지 상태로 당신을 뒤집어놓고 여러가지 자세로 당신을 바꾸어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배고픔을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Ar-Razzāq**)'이라는 그 분의 이름을 알게 되었듯이 당신의 병을 통해 '치료하시는

분(Ash-Shafi')'이라는 이름도 알아야 합니다. 고통과 재난들이 그 분의 몇몇 이름들의 명령이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그 분의 이름 안에는 지혜의 빛과 자비의 빛이 있으며 그 빛들 속에 많은 아름다움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고 저주하는 질병의 장막을 걷어버린다면 그 장막 뒤에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의미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치료

오, 질병에 감염된 환자여! 최근 저는 경험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도달했는데 질병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스러운 분의 호의요, 자애로우신 분의 선물이라는 결론입니다. 최근 8-9 년 동안 저는 그럴 자격이 없었지만 질병과 관련된 기도를 위해 몇몇 젊은이들과 만났습니다. 저는 어떤 병에 걸린 한 젊은이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다른 젊은이들에 비해 종말의 날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의 열기도 없었고 무의식 중에 동물적 욕망마저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견뎌내고 있는 병들이 성스러운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는 자네의 이 병을 거역하지 않겠네. 병 때문에 자네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안타까워 하지도 않겠네. 그래서 자네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네. 병이 자네를 완전히 일깨울 때까지 버텨보게. 병이 자신의 임무를 끝낼 때 비로서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자네를 치료해 주실 것이네, 인살라."

또한 말했습니다; "건강에 닥친 고난으로 인해 자네와 같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만에 빠져들어 예배도 드리지 않고, 무덤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한 시간에 불과한 현생의 피상적인 욕망 때문에 영원한 내세의 삶을 흔들여 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파멸시킬 수도 있네. 반면에 자네는 병으로 인해 자네가 들어가게 될 집인 무덤과 더 뒤에 있는 내세의 집들도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네. 다시 말해 자네에게 병은 건강이요, 자네와 다른 처지의 사람들에게 있던 건강은 곧 병이나 마찬가지로이네."

여섯 번째 치료

오, 고통을 불평하는 환자여!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지나간 생애를 생각하고 그 생애에서 이미 지나가버린 즐거웠던 밝은 날들과 재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회상해 보시오. 당신은 아마도 "야호"라고 환성을 지르거나 "아"하고 탄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심장이나 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거나 "아, 슬퍼라"하고 안타까워 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한 것은 당신이 겪은 고통과 재난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그러한 고통과 재난들이 정신적 즐거움으로 이어져 당신의 심장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끝은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재난들이 끝남으로써 정신 속에는 어떤 즐거움이 유산으로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마음 속에서 행복이 샘솟고 감사의 마음이 방울져 떨어지게 됩니다.

당신에게 “아, 슬퍼라”라고 말하게 한 것은 옛날에 겪었던 즐겁고 밝은 상황들입니다. 즉, 그것들이 끝나면서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영원한 고통이 유산으로 남게 되고, 언제 생각하든 그 고통은 또 다시 후회와 슬픔을 샘솟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만큼의 불법적 쾌락은 때로는 당신에게 한 해만큼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하고 일시적 질병으로 인한 하루만큼의 고통은 여러 날만큼의 행복으로 보상받을 뿐 아니라, 그 고통 끝에 있는 구원으로부터 정신적 행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현재 닥쳐온 이 일시적인 질병의 결과와 그 내면에 있는 보상을 생각하고 “오, 하나님. 이것도 잘 지나갈 거야”라고 말하며,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십시오.

여섯 번째 치료⁴

오, 현세의 쾌락을 생각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의 형제여! 현세가 만일 영원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죽음이 없다면, 또한 이별과 종말의 바람이 불지 않고 재난과 고난으로 점철된 미래의 정신적 겨울철이 없다면, 나도 당신과 함께 당신의 상태를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세는 언제가는 우리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할 것이며 우리의 비명에 귀를 막을 것이기 때문에 현세가 우리를 밖으로 내쫓기 전에 우리가 이 질병들의 경고를 받아들여 이제부터 현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버리기 전에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버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의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몸은 돌이나 쇠로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항상 분해되기 쉬운 다양한 물질로 되어 있지. 그러니 자만심을 버리고 네 무기력함을 알아라. 네 주님을 인정하고 네 의무를 알아라. 그리고 현세에 무엇을 위해 왔는지 배워라.”라고 당신의 심장의 귀에 은밀히 경고하고 있다.

또한 현세의 쾌락과 행복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지속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고통스럽고 죄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한 쾌락을 잃었다고 병을 핑계대고 울지 마시오. 그 반대로 질병들이 내포하는 정신적 경배와 내세에서의 보상 측면을 고려해 그것들로부터 행복을 얻도록 노력하십시오.

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대로 집필하다보니 이 여섯 번째 단계에서 두 가지 치료가 집필되었습니다.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기 위해 저는 순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겠거니 하고 고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치료

오, 건강의 즐거움을 잃은 환자여! 당신의 병이 건강이 갖고 있는 성스러운 은총의 행복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을 더 달콤하게 해주고 더 풍부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계속된다면 그 영향력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은 그 반대를 보면 알 수 있다

إِنَّمَا الْأَشْيَاءُ تُعْرَفُ بِأَصْدَادِهَا

”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암흑이 없었다면 빛을 모르고 즐거움도 없을 것입니다. 추위가 없었다면 따뜻함이 뭔지 모르고 즐거움 없이 살 것입니다. 배고픔이 없었다면 음식의 즐거움을 모를 것입니다. 위장의 갈증이 없었다면 물 마시는 즐거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없었다면 건강의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질병이 없었다면 건강의 즐거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갖가지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고, 다양한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우주에서 갖가지 끝없는 은총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장치를 인간에게 설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분께서는 틀림없이 건강과 안녕뿐만 아니라 질병과 고통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묻노니, “당신의 머리에, 손에, 위장에 어떤 병도 없었다면 당신은 머리와 손과 위장의 건강으로 인한 행복하고 즐거운 성스러운 은총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틀림없이 감사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며 아마도 그 건강을 하나님께 태만한 채 경솔하게 낭비하고 심지어 쾌락으로 탕진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치료

오, 내세를 생각하는 환자여! 질병은 마치 비누처럼 죄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합니다. 질병은 속죄라고 정통한 하디스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디스에서는 “성장한 나무가 몸을 흔들며 자신의 과일을 떨어뜨리듯이 신앙심 깊은 환자도 몸을 떨어 자신의 죄를 떨쳐버린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죄악은 내세의 삶에서는 만성적인 병입니다. 현세의 삶에서도 마음, 양심, 영혼에 대한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당신이 만일 인내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면 이 일시적인 질병뿐 아니라 수많은 만성적인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범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혹은 내세를 모르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도 그 무시무시한 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앓고 있는 백만 가지 작은 병들보다 더 위중한 병이니 오히려 그것에 비명을 지르시오. 왜냐하면 마음, 영혼, 나프스[Nafs]⁵은 세상의 만물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별과 종말로 영원히 그러한 관계가 끊어져 당신 역시 끊임 없이 상처 받게 됩니다. 특히 당신이 내세를 모르고 죽음을 영원한 종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에 있는 동안 멎고 상처 입은 당신의 병든 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끝없이 상처 입고 병든 이 거대한 신체의 수많은 정신적 질병들에 대한 확실한 처방과 확실한 치료를 위해 믿음의 약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할 필요가

⁵ **나프스 [Nafs]:** 생명, 영혼, 개인, 자신(自身), 자아(自我), 욕정 및 분노의 근원이 되며 육체의 감각적 욕망으로 기우는 경향

있는데 그 약을 찾는 지름길은 이 물질적 질병이 산산조각
내버린 무지의 장막 아래에서 당신에게 보여준 무기력함과
허약함의 창문을 통해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가득한
시련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의 세계는 빛과 정신적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이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나온 정신적 행복과 처방과
즐거움 속에서 부분적인 물질적 질병의 고통도 진정되고
사라집니다.



아홉 번째 치료

오, 자신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환자여! 질병이 고통과 공포와 근심을 주는 것은 그것이 때로는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솔함 때문에 그리고 겉으로만 보고 죽음이 무서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겁을 주고 공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죽음의 시간은 운명이며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굳게 믿으시오. 매우 위중한 환자 앞에서 우는 사람들 혹은 완벽한 건강을 가진 사람들이 죽고, 중병을 앓던 사람이 처방을 받고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둘째: 죽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수많은 글에서 매우 분명하고 아무 의심할 바 없는 형식으로, 즉 가장 지혜로운 구란이 베풀어 준 빛을 통해 증명했듯이, 믿는자들에게 죽음은 삶의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세의 광장에서 치르는 시험에서 교육과 훈련이라는 경배로부터의 일종의 휴식인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저 세상으로 간 99 퍼센트의 친지 및 친척들과 재회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진정한 고향으로,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장소로 들어가는 수단이며 현세의 감옥에서 천국의 정원으로 가는 일종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봉사한 대가로 자비로우신 창조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시간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진정한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음을 공포스러운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자비와 행복의 시작이므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인들의 일부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공포스러워서가 아니라 좀더 많은 은총을 얻기 위해 삶의 의무로 쌓아야 할 선행을 계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자비의 문이 되지만 방황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암흑의 구렁이가 될 것입니다.

열 번째 치료

오, 쓸 데 없이 걱정하는 환자여! 당신은 질병이 위중해 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걱정이 당신의 병을 더 위중하게 할 것입니다. 병이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다시 말해 병의 장점들과 그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고 빨리 회복될 것을 생각하십시오. 걱정을 내려놓고 병의 뿌리를 잘라내시오.

그렇습니다. 걱정은 병을 배가 시킵니다. 물질적 질병에 덧붙여 걱정으로 마음에 정신적 질병까지 더합니다. 물질적 질병은 이 걱정에서 따라 계속 됩니다. 만일 당신이 복종하고 만족하고 질병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함으로써 걱정이 사라진다면, 그 물질적 질병의 중요한 근원이 제거되고, 병이 가벼워지고, 부분적으로 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특히 한 푼짜리 물질적 질병이 쓸 데 없는 걱정으로 인해 때로는 열 량짜리 병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걱정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질병의 9 할은 사라질 것입니다. 걱정은 질병을 늘릴 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신의 지혜에 대한 이의 제기이자, 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비난이자, 자비로우신 창조주에 대한 불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도한 바와 달리 오히려 벌을 받으며 병을 더 중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은혜를 크게 하듯이 불평은 병과 재난을 키웁니다.

또한 걱정은 그 자체도 하나의 병입니다. 그 처방은 질병이 주는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질병의 지혜와 장점을 알았으니 그 약을 걱정이라는 환부에 바르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아”라는 한숨 대신에 “오”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아슬퍼라”하는 탄식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하고 말하십시오.

열한 번째 치료

오, 참을성 없는 환자 형제여! 질병은 당신에게 당장의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 처음 병이 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병의 끝에 있는 정신적 행복과 그 인내의 보상인 영혼의 즐거움도 줍니다. 오늘 이후, 아니 이 시각 이후부터 병은 없습니다. 병이 없으니 고통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슬픔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으로 기우에 빠져있기 때문에 초조함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의 모든 물질적 질병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통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질병 자체의 보상과 그 질병의 끝에 있는 즐거움만 남았습니다. 당신에게 이익과 행복을 줄 것이 틀림 없는데,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고통스러워 하고 초조해 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미래의 나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날들을 벌써부터 생각해 있지도 않은 어느 날, 있지도 않은 어느 질병과, 있지도 않은 어떤 고통을, 쓸 데 없는 걱정으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초조해 함으로써 3 중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친 짓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각 이전의 병을 앓던 시간의 경우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각 이후의 시간의 경우, 없습니다, 병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인내력을 이처럼 사방에 흩어지게 하지 마시오. 현재 시각의 고통에 대항해 힘을 끌어올리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오, 가장 인내하시는 분이여!”라고 외치며 그 고통을 견디시오.

열두 번째 치료

오, 병으로 인해 예배와 기도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상실감 때문에 슬퍼하는 환자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하디스에서 확인했듯이, 경건한 신자가 병으로 인해 행하지 못하는 일상의 기도예에 대한 보상은 병을 앓는 동안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의무 예배를 이행하는 환자는, 인내심을 갖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자신의 의무를 수행한다면, 그 중병을 앓는 기간에 나머지 추가적인 순나 예배의 역할을 순전히 그 병이 대신하게 됩니다.

또한 병은 인간의 무기력함과 허약함을 일깨워줍니다. 그 무기력함과 허약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말과 행동으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성스러운 하나님의 궁전에 피신처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원하고 기도하게 하도록, 인간에게 끝없는 허약함과 한없는 무기력함을 주셨습니다.

﴿قُلْ مَا يَغْبِرُ أَبْكُمْ رَبِّي لَوْلَا دُعَاؤُكُمْ﴾

“너희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주께서는 너희들을 돌보지 않았을 것이니라.”⁶ 라는 꾸란 구절이 내포한 비밀에 따르면 인간의 창조 목적과 인간의 존재가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영원이며 질병도 기도와 영원의 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며,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질병이 열어놓은 기도의 수도꼭지를 잠가서는 안됩니다.

⁶ (꾸란 25 장 77 절)

열세 번째 치료

오, 병을 불평하는 불쌍한 사람이여! 질병은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보물이요, 매우 가치 있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환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날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절대적인 절망과 절대적인 태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희망과 공포의 중간쯤에, 그리고 현세와 내세를 모두 보호하는 지점에 두기 위해, 그 분의 지혜로 최후의 날을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최후의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인간을 태만 속에 붙잡아 놓는다면 내세의 영원한 삶에 큰 해가 될 것입니다. 질병은 그러한 태만을 떨치게 하며 내세를 생각하게 하고 죽음을 상기시킴으로써 미리 준비하게 합니다. 몇몇 질병은 너무도 이로워 인간이 20 년 동안 오르지 못했던 지위를 단 20 일만에 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들 가운데 두 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 주여,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중 한 명은 일라말 출신의 사브리, 다른 한 명은 이슬람교이 출신의 베지르자데 무스타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글을 쓸 줄은 몰랐지만 제 제자들 가운데 진실성에 있어서나 신앙 생활에 있어서나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놀랍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그들이 사망한 후에야 둘 다 중한 병에 걸렸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태만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젊은이들과 달리 질병의 안내를 받아 가장 중요한 경건함과 가장 가치 있는 신앙을 실천함으로써 내세에 유익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살라, 2 년 동안의 투병은 수백만년 영원한

삶의 행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건강을 위해 제가 간혹 드렸던 기도는 현세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저주가 되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인살라, 제 기도는 그들의 내세에서의 안녕을 위해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 믿음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10 년간의 경건함으로 손에 넣을 수 있을 만큼의 이득을 보았을 것입니다. 만일 두 사람이 일부 젊은이들처럼 건강과 젊음을 믿고 태만과 오락에 빠졌더라면, 그래서 죽음도 그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더러움 속에서 그들을 낚아챘다면, 그 빛으로 가득 찬 보물 창고 대신에 그들의 무덤은 전갈과 뱀들의 소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질병에도 장점이 있으니 그것은 병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인내함으로써 그 분께 감사드리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것입니다.



열네 번째 치료

오, 눈이 장막으로 가려진 환자여! 만일 신자들의 눈에 드리워진 장막 밑에 어떤 빛과 어떤 정신적인 눈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비로우신 주님께 십만 번 감사드립니다!”하고 탄성을 지를 것입니다. 나는 그 처방약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게 8 년동안 전혀 마음을 상하지 않게 완전한 충심으로 봉사한 바를라 출신의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모가 어느날 눈이 멀었습니다. 그 독실한 여인은 나를 가진 것보다 백 배는 더 잘 바라보며 “내 눈을 뜰 수 있게 기도해주오”하고 말하며 모스크 문 앞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도 그 축복 받은 여인의 진실함을 제 기도에 담아 “오 주님, 그녀의 진실함을 존중해 그녀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하고 간청했습니다. 이를 후 부르두르 출신의 한 안과 의사가 와서 그녀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40 일 후 그녀는 또 다시 눈이 멀었습니다. 저는 몹시 슬퍼하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살라, 그 기도는 그녀의 내세를 위해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그녀를 위해 몹시 잘못된 하나의 저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녀의 죽음까지 40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40 일 후 그녀는 사망했습니다 - 주여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해서 고인은 40 일 동안 바를라의 쓸쓸한 정원을 슬프고 노쇠한 눈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의 무덤에서 천국의 정원을 4 만 일 동안 구경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녀의 신앙심은 매우 강했으며 매우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신자의 눈에 장막이 드리워지고 눈이 먼 채 무덤에 들어가도 정도에 따라 무덤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빛의 세계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 우리는 그토록 많은 것들을 보고 있지만 눈이 먼 신자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님들이 무덤에 신앙심을 갖고 들어갔다면 무덤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만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멀리까지 보이는 망원경으로 보듯이 자신의 무덤에서 신앙심의 정도에 따라 천국의 정원들을 마치 영화처럼 보고 감상할 것입니다.

이처럼 온통 빛으로 가득 찬 땅 밑에 있으면서 하늘 위에 있는 천국을 보며 감상할 수 있는 어떤 눈을, 바로 눈 앞에 있는 장막 밑에서 감사와 인내로 당신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장막을 당신의 눈에서 벗겨내고, 당신을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줄 안과 의사는 바로 가장 지혜로운 꾸란입니다.



열다섯 번째 치료

오, 한숨 짓고 흐느끼는 환자여! 질병의 걸만 보고 한숨짓지 마시오. 그 의미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시오. 만일 질병의 의미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면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종복들에게 질병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정통한 하디스에는

أَشَدُّ النَّاسِ بَلَاءً الْأَنْبِيَاءُ ثُمَّ الْأَوَّلِيَاءُ،
ثُمَّ الْأَمْثَلُ فَالْأَمْثَلُ

”가장 큰 재난과 고난을 당한 자들은 가장 착하고 신앙적으로 완벽한 자들이니라”⁷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지자 욥(그 분께 평화가 깃드소서)을 비롯한 선지자들에 이어 성인들, 그 뒤를 이어 정의로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은 질병 하나하나를 진실한 경배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인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재난과 고난을 자비로우신 창조주의 자비로부터 내려진 일종의 외과 수술로 본 것입니다.

오, 한숨짓고 울부짖는 당신이여! 당신이 이 빛나는 대열에 함께 하고싶다면 인내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불평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대열에 끼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⁷ Al-Munawi, Fayd al-Qadir, i, 519, no: 1056; al-Hakim, al-Mustadrak,iii 343; Marda, 3; Tirmidhi, Zuhd, 57; Ibn Maja, Fitan, 23; Darimi, Riqaq, 67; Musnad, i, 172, 174,180, 185; vi 369.

의무에 태만한 자들(**ghāfilūn**)⁸의 구덩이에 떨어질 것입니다.
암흑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질병들은 죽음으로 이어졌을 때 일종의 정신적 순교로 간주되는데 그러한 순교는 성인과 비슷한 수준에 달합니다. 예를 들면, 출산⁹으로 인한 질병, 위장통, 익사, 화재, 전염병 등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은 정신적 순교자가 됩니다. 또한 어떤 축복 받은 질병들은 죽음으로 인해 고인에게 성인의 지위를 얻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은 현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볍게 해주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 현세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극도의 슬픔과 괴로움이 되는 이별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며, 때로는 좋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⁸ **Ghāfilūn:** 가필룬은 ‘부주의한, 무관심한, 소홀할’의 뜻으로 아직 진리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여 무지와 무관심 속에 신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신앙문제에 관해 아직 부주의한 상태에 남아 있는 자를 의미함.

⁹ 출산으로 인한 질병이 정신적 순교의 지위를 얻기 위한 기간은 해산 후 산모가 자리에 누워있는 최대 기간인 40 일까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치료

오, 고통을 불평하는 환자여! 질병은 인간의 사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매우 아름다운 존중과 동정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을 야만스러움과 냉혹함으로 몰아넣는 오만으로부터 구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꾸란의

﴿إِنَّ الْإِنْسَانَ لِرَبِّهِ لَكَنَافٍ ۖ أَن رَّاهُ اسْتَغْنَىٰ﴾

“실로 인간은 한도를 넘어서느니라. 그는 자기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라.”¹⁰

구절에서도 언급했듯이 건강과 안녕으로 인해 오만에 빠진 채 악마의 명령을 따르는 영혼 (나프스 알암마라 [Nafs al-Ammarah])¹¹는 존중할 가치가 있는 형제애에 존경심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할만한 불쌍한 이재민들과 환자들에게 동정심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 병에 걸리든 그 병에서 무기력함과 부족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존경할 가치가 있는 형제들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위문하러 오거나 도우러 온 신자 형제들에게 존경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식으로부터 나온 인간적 친절과 가장 중요한 이슬람의 특성 중 하나인 이재민에 대한 동정심도 느껴 그들을 자기 자신과 비교해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동정하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기도할 것이며 이슬람법에서 순나인 위문을 함으로써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¹⁰ (꾸란 96 장 6-7 절)

¹¹ 나프스 알암마라 [Nafs al-Ammarah]: 피조물들의 권리나 법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금지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쾌락으로 기우는 인간의 비이성적, 본능적 자아를 일컫는 말이다.

열일곱 번째 치료

오, 병으로 선행을 하지 못해 불평하는 환자여! 감사하시오. 선행의 가장 진실된 문을 열어준 것은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은 환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에게, 보상을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신자들에게는 중요한 보상이 내려집니다. 환자의 안부를 묻는 것이나 환자를 귀찮게 하지 않고 방문하는 것도 사도님의 관행인 순나이자 속죄 행위가 됩니다. 하디스에서 “환자들의 기도를 받아라. 그들의 기도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니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친척이든지, 그 중에서도 환자가 부모든지 간에,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보상을 받는 중요한 경배행위입니다. 환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위로하는 것도 중요한喜事(喜事) 간주됩니다.

부모가 아플 때 쉽게 감동 받는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어 선의의 기도를 받는 자녀는 행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생활에서 가장 존중되는 부모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이 아플 때 완전한 존경심과 자식으로서의 친절로 그들을 대하는 착한 자녀들의 태도와 인간적 고결함을 보여주는 그 충직한 광경 앞에서 천사들조차도 “오,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소서”라고 환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플 때 질병의 고통을 없애줄 몹시 기쁘고 즐거운, 주변에서 보여주는 친절로부터 그리고 위로와 동정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환자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삼십년 동안 제게 있는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기도를 위해 병에 걸렸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다시 말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없앨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의 결과는 내세와 관계 있으며¹² 기도 자체도 일종의 경배라는 사실과 병을 통해 무기력함을 알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궁전에 피신처를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삼십년 동안 치료의 기도를 드렸지만 제 기도가 외견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를 그만 두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질병은 기도의 시간이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병의 완치는 기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현명하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면 그것은 크나큰 은총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현명하신 창조주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분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베풀어주십니다. 때로는 현세와 관련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이익을 위해 내세로 돌리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질병으로 인해 진심을 얻은 기도, 특히 허약함과 무기력함과 초라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시작한 기도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은 이처럼 진정한 기도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신앙심 깊은 환자나 환자를 돌보는 신자들이나 모두 이 기도로부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¹²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질병은 기도의 존재 이유이지만, 기도가 병을 없애는 수단이었다면 기도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니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열여덟 번째 치료

오, 감사를 버리고 불평을 시작한 환자여! 불평은 어떤 권리로부터 나오는 법입니다. 당신은 어떤 권리도 잃지 않았는데 불평하고 있습니다. 당신 위에 하나의 권리인 수많은 감사가 있는데도 당신은 그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리는 주지 않고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듯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보다 상위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지 마시오. 당신 자신보다 건강 면에서 더 하위에 있는 불쌍한 환자들을 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의 손이 부러졌다면 잘린 손들을 보시오. 한 쪽 눈밖에 없다면 두 눈이 없는 장님들을 보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면에서 자신보다 위를 보고 불평할 권리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있어서 각자의 권리는 자신보다 재난 면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밀은 『누르集』의 몇몇 글에서 예를 들어가며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불행한 사람을 모스크 침탑 끝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는 침탑으로 오르는 각 계단마다 하나씩 보상을 주고 선물을 줍니다. 침탑 꼭대기에서도 가장 큰 선물을 줍니다. 그는 그 다양한 선물들에 대해 그 불행한 사람으로부터 감사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 사악한 사람은 모든 계단에서 받은 선물들을 잊은 채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감사도 하지 않고 위를 바라봅니다. “이 침탑이 더 길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산처럼 혹은 다른 침탑처럼 그렇게 높지 않았을까”하고 말하며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나쁜 행동이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이 아무 것도 없는 무(無)에서 생겨나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인간이 되어 무슬림으로서 오랜 시간 건강과 평안을 누리며 아주 높은 은총의 지위를 얻었지만, 몇가지 결함으로 건강과 평안과 같은 은총을 받을 만하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오판이나 남용으로 잃어버리거나 손에 넣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을 하고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며 “아,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하고 모든 것을 ‘양육하시는 하나님’(Rububiyyah)을 ¹³ 비난하는 등의 상태는 물질적 질병보다 더 처참한 정신적 질병입니다. 마치 부러진 손으로 싸우는 것처럼 불평은 병을 키울 뿐입니다.

لِكُلِّ مُصِيبَةٍ إِنَّا لِلَّهِ وَإِنَّا إِلَيْهِ رَاجِعُونَ

“우리는 어떤 재난을 당하든 ”우리는 알라의 것이며 분명히 그분께 돌아갈 것이다.” 라는 꾸란 구절처럼 질병이 그 의무를 다하고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인내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¹³ Rububiyyah : 하나님의 끝이 없는 창조하심과 양육하심, 만물의 주인, 만물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성

열아홉 번째 치료

‘모든 만물로부터 간청을 받으시는 하나님’(As-Samad)¹⁴, 그분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을 보면,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 중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포괄적인, 만물로부터 간청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울은 바로 삶입니다. 아름다움의 거울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것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거울 역시 아름다워집니다. 그러한 거울 앞에 그러한 아름다운 것 중 무엇이 와도 아름답듯이, 삶 앞에 무엇이 닥쳐와도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들”의 아름다운 자수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삶이 항상 건강과 평안 속에서 단조롭게 흘러간다면 결함 있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한 편으로는 없고 부족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해 고통을 주어 삶의 가치를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삶의 즐거움을 고통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시간을 빨리 보내야지”하며 자신의 고통을 피해 비도덕적 쾌락이나 유흥에 빠지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처럼 자신의 가치 있는 삶에 적개심을 갖고 그 삶을 빨리 죽이며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¹⁴ **As-Samad:** 앓 싸마드는 하나님께 속하는 속성들 중의 하나로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란 뜻이다. 인간을 비롯한 세상의 창조물 모두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조주께 의자하고 도움을 간구 드리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필요를 초월하신 분, 완전하고 영원하신 절대자’이시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 그리고 행동과 각각의 태도 속에서 굴러가고 있는 삶은 그 가치를 느끼게 하고 그 중요성과 즐거움을 알게 해줍니다. 고난과 재난 속에 있어도 생명을 잃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 태양이 아직 지지 않았어” 혹은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고통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부자이며 빈둥거리며 호화로운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이는 신사에게 “당신의 형편은 어떤가요?”하고 물어보시오. 틀림 없이 당신은 그로부터 “아, 시간이 안 가네요. 이리 와 주사위 놀이나 합시다” 혹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 오락거리나 찾아봅시다” 등의 지겨워하는 소리들을 듣거나 혹은 지나친 욕심 때문에 나오는 “내 것은 부족해, 저 일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과 같은 불평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근로자 혹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의 형편은 어떤가요?”하고 물어보시오. 현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좋아요.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가 빨리 지지 않았더라면 이 일을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세월이 유수 같이 빠르네요. 삶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네요. 솔직히 힘드네요. 하지만 이것도 지나가겠지요.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라고 말하며 삶이 얼마나 가치 있으며 빨리 흘러가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나타낼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고난과 일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과 건강은 삶을 지겹게 만들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게 합니다.

오, 아픈 형제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누르集』의 다른 글에서도 자세히 확실하게 증명했듯이, 재난과 악, 심지어는

범죄의 근본과 원천은 “없다는 것”(‘adam)¹⁵입니다. “없다는 것”은 곧 악이요, 암흑입니다. 단조로운 평안함, 조용함, 고요함, 멍춤 등과 같은 상태는 “없는 것”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암흑을 느끼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행동과 변화는 “있는 것”을 의미하며 존재감을 느끼게 합니다. 존재는 순수한 선이며 빛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질병은, 가치 있는 삶을 순수하고 강하고 발전되게 만드는 것, 당신이 갖고 있는 나머지 인간의 장치들을 병에 걸린 신체기관 부위에 도움이 되도록 배치해주는 것, 지혜로우신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가 새겨진 자수들을 보여주는 것 등의 많은 의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병에 걸린 당신의 존재에게 손님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인살라, 당신의 병은 신속히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 이리워서 내 대신에 영원히 남아라. 네 의무를 다해라. 이 집은 네 집이니 건강하게 머물러라”라고.



¹⁵ ‘adam: 부존(부존(不存), 부재(不在), 존재하지 않는 상태. 존재하지 않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예를 들어 지혜의 부재는 우매함의 근원이며 동정심이 없는 것은 잔인함의 근원이다.

스무 번째 치료

오, 고통의 처방을 찾는 환자여! 질병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적 질병이요, 다른 하나는 상상적 질병입니다. 사실적 질병의 경우 영광스럽고 현명한 치료자이신 하나님께서 거대한 약국인 지구상에 모든 질병에 맞는 처방을 배설해놓으셨습니다. 그러한 처방들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고통에 맞는 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치료를 위해 약을 획득해 사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그 약의 효과와 치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을 주셨을 뿐 아니라 치료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건한 능숙한 의사들의 충고를 따르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약입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병들이 오용, 자제력 부족, 남용, 실수, 방탕,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경건한 의사는 틀림 없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충고하고 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그는 오용과 남용을 금지하며 위로를 줄 것입니다. 환자는 그의 지시와 위로를 믿고 자신의 병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고통 대신에 편안함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적 질병의 경우, 그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약은 질병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성을 둘수록 병은 커지고 부풀어날 것입니다.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면 병은 작아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벌들이 건드릴수록 인간의 머리 주위로 몰려들고 무시한다면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 앞에 어른거리는 한 가닥의 줄로부터 상상한 것에 중요성을 둘수록 그 상상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그것을 내쫓으려 할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뱀이 아니라 한 가닥 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머리 속의 공포감에 실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 상상적 질병이 오래 계속된다면 사실적 질병으로 바뀝니다. 과대망상이나 신경과민은 인간에게 심각한 질병입니다. 침소봉대하고 정신력을 파괴합니다. 특히 무자비한 반쪽짜리 의사나 정의롭지 못한 의사를 만난다면 과대망상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한 자는 재산을 잃을 것이며 혹은, 이성을 잃을 것이며, 혹은 건강을 잃을 것입니다.



스물 한 번째 치료

오, 아픈 형제여! 당신의 질병에는 물질적 고통이 있지만 그 물질적 고통의 영향력을 제거해 줄 중요한 하나의 정신적 행복이 당신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부모나 친척이 당신과 함께 있다면 당신이 오래 전부터 잊었던 매우 행복했던 그 옛날의 즐거운 일들을 당신 옆에서 다시 일깨워주고, 어린 시절에 당신이 보았던 그 달콤한 광경들을 다시 보게해줄 뿐 아니라, 아주 비밀스럽게 장막 속에 감춰졌던 당신 주변의 우정들이 병의 마력으로 인해 다시 당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기 때문에 틀림 없이 당신의 이 물질적 고통은 무척 가벼워질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자랑스럽게 봉사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병 때문에 당신에게 동정을 갖고 봉사하기 때문에 당신은 신사들 중 최고의 신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동병상련의 정을 당신 자신에게 끌어들이므로써 당신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동정심 많은 친구와 친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그 병 때문에 당신은 힘든 일로부터 휴가를 얻어 쉬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작은 고통이 이러한 정신적 행복과 마주쳐 당신을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이끌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스물 두 번째 치료

오, 마비될 것처럼 아픈 중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여! 먼저 당신에게 희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신자들에게 마비는 축복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 전부터 성인들로부터 들어왔지만 그 비밀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중 한 가지 비밀이 다음과 같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그리고 현세의 큰 정신적 위험들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고 또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두 가지 원리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현세가 언젠가는 끝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 안에서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손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자세로 영원한 삶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마가 조정하는 영혼 (**나프스 알암마라 [Nafs al-Ammarah]**)¹⁶ 과 눈먼 감각의 위험들로부터 구원 받기 위해 고행과 금욕 생활로 악마가 조정하는 영혼 (**나프스 알암마라 [Nafs al-Ammarah]**)을 죽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¹⁶ **나프스 알암마라 [Nafs al-Ammarah]**: 피조물들의 권리나 법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금지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쾌락으로 기우는 인간의 비이성적, 본능적 자아를 일컫는 말이다.

오, 당신 몸에서 건강의 반을 잃은 형제여! 선택할 여지 없이 짧고 쉽고 행복의 원인이 되는 이 두 가지 원리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항상 당신 몸의 상태는 언젠가는 현세의 종말이 오고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는 더 이상 당신을 숨 막히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만은 더 이상 당신 눈을 감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프스 알암마라 **[Nafs al-Ammarah]** 는 틀림 없이 천박한 욕심과 동물적 욕구로 반쪽짜리 인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한 영혼 **(나프스[Nafs])**¹⁷의 재앙에서 신속히 구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신앙의 비밀로,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의지함으로써 마비될 것처럼 아픈 중병으로부터 짧은 시간 내에 성인들의 고행 생활처럼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그 때 그와 같은 중병의 어려움은 아주 적어질 것입니다.



¹⁷ **나프스[Nafs]:** 생명, 영혼, 개인, 자신(自身), 자아(自我), 욕정 및 분노의 근원이 되며 육체의 감각적 욕망으로 기우는 경향

스물 세 번째 치료

오, 아무도 없는 불쌍한 이방인 환자여! 당신의 병과 당신의 고독한 타향 생활이, 가장 냉혹한 사람들의 심장 속에 당신을 향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동정의 시선을 끌게 할지라도, 구란의 모든 장 첫 구절에 그 분 스스로를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분’(Ar-Rahmānir-Rahīm)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분의 동정의 빛 하나로 모든 어머니들이 그 놀라운 애정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하게 해주시고, 그 분의 자비의 표시 하나로 매년 봄마다 지구 표면을 은총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분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자비의 표시 하나로 영원한 삶인 천국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자비로우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신앙심으로 그 분과

관계를 맺고 그 분을 인정하고 당신의 질병으로 인한 무기력의 언어로 그 분께 간청하십시오. 그러면 틀림 없이 당신의 이러한 타향생활에서의 외로움이라는 병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 분의 자비의 시선을 당신에게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분께서 계시고 그 분께서 당신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심과 복종심으로 그 분과 관계를 맺지 않거나 그 분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는 자가 진정 외로운 타향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스물 네 번째 치료

오, 순진한 환자 아이들과 순진한 아이들과 다름 없는 노인들을 돌보는 간병인들이여! 당신들 앞에는 중요한 내세의 거래가 있습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그 거래를 성취하십시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증명되었듯이, 순진한 어린이들의 질병은 연약한 몸에 운동과 연습 같은 것이며, 미래에 세상의 첩첩산중 같은 혼란에 대비해 저항력을 키우기 위한 예방주사이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육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은 정신적 삶을 생각하고 그 삶의 정화에 수단이 되는 성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속죄와는 달라, 어린이의 현세의 삶에 속하는 수많은 지혜의 사례와 더불어 미래에 혹은 내세에서 정신적 발전을 보장하는 일종의 예방주사인 셈입니다. 그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축적되는 은총은 부모의 선행, 특히 그 놀라운 애정으로 자기 자신의 건강보다 자기 자녀의 건강에 더 신경을 쓰는 어머니의 선행을 기록하는 서책에도 등록될 것입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경우, 큰 보상을 얻을 뿐 아니라 특히 노인들이 부모인 경우 그 노인들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을 위해 충직하게 봉사하는 것이 현세의 행복뿐 아니라 내세의 행복을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 정통한 하디스와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로 증명되었습니다. 나이드신 부모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행복한 자녀는 자신의 자녀들로부터도 똑같이 대우를 받지만, 불행한 자녀가 자신의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내세에서 받게 될 벌 이외에도 현세에서도 많은 재앙으로 벌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 사건들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들, 순진한 사람들, 단지 친척들 뿐 아니라 믿는 자들 중 한 사람과 만난다면(진정한 형제애와 믿음에 관한 꾸란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경할만한 환자 노인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성심성의껏 그에게 봉사하는 것이 이슬람의 의무입니다.



스물 다섯 번째 치료

오, 아픈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가장 이롭고 각각의 병에 맞는 처방과 진정한 행복을 주는 성스러운 치료를 원한다면 당신들의 신앙심을 강화시키시오. 말하자면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빚으로써, 또한 예배와 경배로써, 성스러운 치료인 신앙심과 그 신앙심으로부터 오는 처방약을 이용하시오.

그렇습니다. 현세에 대한 사랑과 집착 때문에, 마치 종교적 의무에 태만한 사람들의 세상처럼, 크게 아픈 정신적 존재가 있습니다. 신앙심은 그러한 세상처럼 종말과 이별의 충격에 멍들고 상처입은 그 정신적 존재를 순식간에 치유해주고 상처들을 아물게 해주고 진정한 치료를 해준다는 것을 이미 『누르集』의 여러 글에서 증명한 바 있습니다. 당신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여기서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신앙의 약은 당신이 가능한 한 종교적 의무를 이행할 때 효과를 보여줍니다. 종교적 태만, 방탕, 영혼의 탐욕, 이슬람법에 저촉되는 오락은 처방약의 효과를 저해합니다. 질병은 종교적 태만을 해소해 주고, 탐욕을 끊어주고, 불법적 쾌락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시오. 회개와 용서로, 그리고 기도와 염원으로 진실한 신앙의 성스러운 처방약과 그 빛들을 이용하시오.

영광스러운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치료해주시고 당신들의 병을 속죄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아멘.

﴿الْحَمْدُ لِلَّهِ الَّذِي هَدَيْنَا لِهَذَا وَمَا كُنَّا لِنَهْتَدِيَ لَوْلَا أَنْ هَدَيْنَا اللَّهُ
لَقَدْ جَاءَتْ رُسُلُ رَبِّنَا بِالْحَقِّ﴾

“...그들이 말하길 저희를 이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신
알라(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알라(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저희는 인도되지 못하였으리라. 실로 그것이 주님의
예언자들이 저희에게 전한 진리였습니다...”¹⁸

﴿سُبْحَانَكَ لَا عِلْمَ لَنَا إِلَّا مَا عَلَّمْتَنَا إِنَّكَ أَنْتَ الْعَلِيمُ الْحَكِيمُ﴾

“오, 알라(하나님)이여! 홀로 영광받으소서. 저희는 당신이
가르쳐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실로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십니다.”¹⁹

¹⁸ (꾸란 7 장 43 절)

¹⁹ (꾸란 2 장 32 절)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